

Overweight
(Maintain)



보험/증권/지주 Analyst 안영준
yj.ahn@kiwoom.com

증권

그냥 빨리 타



-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규제 완화, 외국인 국내 증시 유입 본격화 전망
- 국내 증시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월간 거래대금은 역대 최고치 재경신
- 국내 증시와 거래대금의 상단이 확장되는 구간. 증권 업종 긍정적 시각 유지

>>>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국장 매수가 시작된다

올해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과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국내 증권사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외국 증권사가 현지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로의 일괄 주문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자유롭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외 투자자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자유롭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 월 금융위의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거래를 개시한 하나증권 이외에도 삼성/유안타/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KB 증권 등이 통합계좌 출시를 준비 중이다.

>>> 4월 월간 거래대금 최고치 재경신

4 월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전월/전년대비 각각 3%/276% 증가한 1,492 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분기 거래대금 사상 최대를 기록한 1 분기의 월평균 거래대금인 1,310 조원보다 14% 증가한 것이다. 4 월 한 달 간 코스피/코스닥의 상승률은 각각 30%/14%였으며, 4 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전월말대비 18% 증가한 130 조원, 신용잔고는 10% 증가한 36 조원을 기록했다. 증시 활황으로 관련 주요 지표 호조도 이어지고 있다.

>>> 국내 증시/거래대금 상단 확장. 증권 업종 직접 수혜 예상

아직까지 외국인 통합계좌는 시범 운영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거래 활성화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 1 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여 이번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영문 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국내 증시로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증권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이제 시작 단계인 바 국내 증시와 거래대금의 상단이 확장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향후 국내 증권사들이 주요 글로벌 브로커리지 기업과 협력이 공식화될 때마다 기대감이 추가로 주가로 반영될 수 있다. 증권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4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2026. 1. 9. 중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내용

- **(외국인 통합계좌) 해외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과 수요기반 강화**

* 국내 개인투자자들("서학개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듯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글로벌 동학개미")의 유입 확대 가능

❖ **참고 : 외국인 통합계좌(통합주문-통합결제) 정의**

- (근거규정 : 금투업규정 §6-7⑦)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계열회사로서 국외에서 투자매매·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계좌 개설주체 제한 요건**(현행: 국내 금투업자 등의 대주주 또는 계열사)을 **폐지** **['26.1월]**

* 4개 해외 증권사(Emperor, InteractiveBrokers, TFI, BancTrust)의 계좌 개설 허용
→ 제도 도입 8년만에 최초로 계좌개설(25.9월) 및 투자개시(하나증권-Emperor증권)

-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를 월 1회** → **분기별 1회**로 변경하여 **사후보고 부담 완화** **['26.1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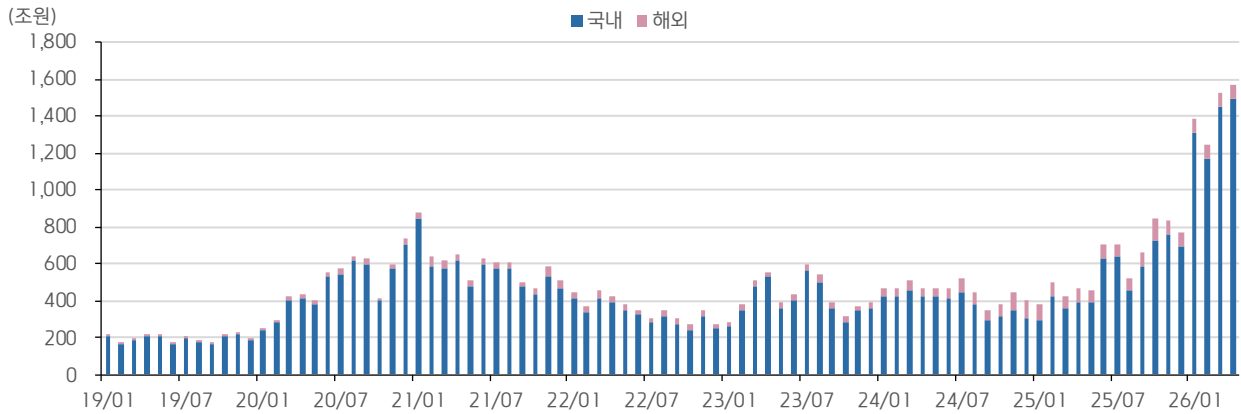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2026. 1. 9. 중 주요 예정 항목

참고 1		우리나라 MSCI 시장접근성 평가 결과('25.6월)		
평가항목		'24.6	'25.6	비고
1. 시장 개방성	① 투자자 자격요건	우수	우수	-
	② 외국인 자본 제한 수준	우수	우수	-
	③ 외국인 투자 여력 수준	보통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의 0.3~1.0%가 외국인 보유제한 규제의 영향권
	④ 외국인 투자자 동일 권리 보장	보통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문 정보공시가 개선됐으나, 모든 기업은 아님 * 현재 1단계만 시행, '26년 2단계 시행여부는 불확실
2. 자본 유출입 용이성	① 자본 유출입 규제	우수	우수	-
	②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미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외 외환시장 부재, 역내 시장 제약 지속 * 외환시장 구조개선으로 외국금융기관(RFI)의 역내 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새벽2시까지 연장, Overdraft 허용되었으며, 향후 진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 ** 완전한 태환성 및 성숙한 역내외 외환시장이 필요 → 한국의 제한적 개혁이 선진시장을 구현할지 아직 미지수
3. 시장 운영의 효율성	① 시장 진입			
	a)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미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IRC(투자등록증) 대신 LB(법인식별번호)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계좌는 여전히 IRC를 사용 중이며, 옴니버스 계좌 활용에 장애요인
	② 시장 구조			
	a) 시장 규제	우수	우수	-
	b) 정보 흐름	미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락 이후 배당금 공개는 국제기준에 미흡 * '24년 제도개선 완료되었으나, 일부 기업만 적용
	③ 시장 인프라			
	a) 청산 및 결제	미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일 원화차입(Overdraft) 및 옴니버스 계좌 활용이 가능하나, 결제는 여전히 최종투자자 ID별로 진행 *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음
	b) 수탁	우수	우수	-
	c) 등록 및 예탁	우수	우수	-
	d) 매매	우수	우수	-
e) 증권 이동성	미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 이체와 장외 거래 수행능력이 제한적 * '23.12월 장외거래 사후신고 대상 확대 및 신고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이용 초기 단계로 실행상 어려움 존재 	
f) 대주	우수	우수	-	
g) 공매도	미흡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3월 공매도 재개로 평가 상향 * 시장 거래는 회복중이나, 투자자의 규제준수 부담 및 규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상존 → 지속 평가 예정 	
4. 투자상품의 가용성	미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시장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파생상품(MSCI Korea 선물 등) 등 가용성 제약 * 한국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접근이 선진시장 수준으로 전면 개방될 필요 	
5. 제도적 안정성	보통	보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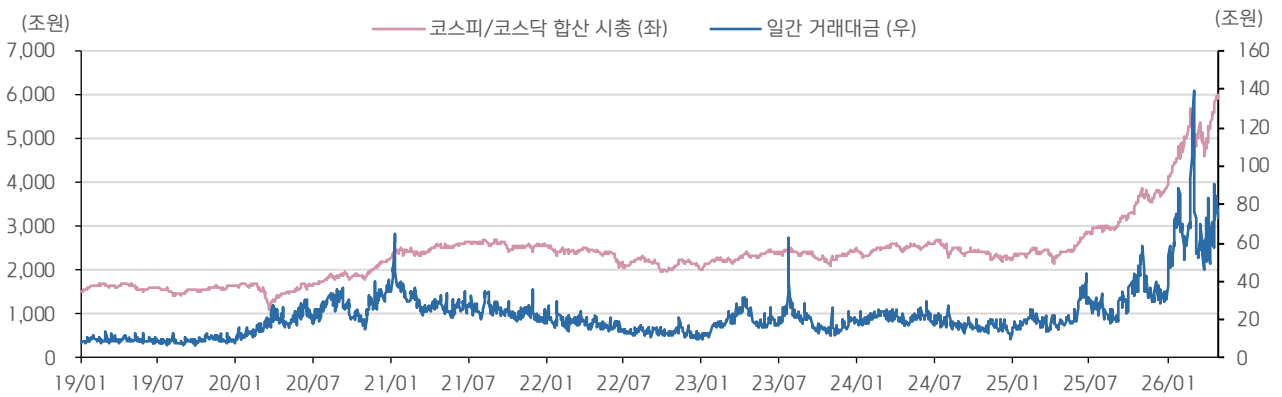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증시 월간 거래대금 추이 - 4월 역대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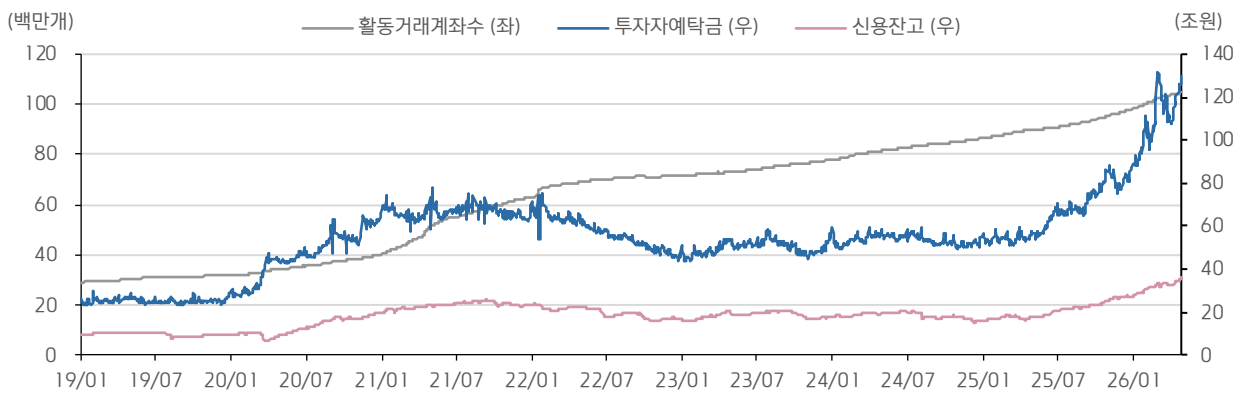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FnGuide, NXT, SEIBRO,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증시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 및 일간 거래대금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NX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투자자예탁금 및 주식거래활동계좌수, 투자자예탁금, 신용잔고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추가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추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추가 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5/04/01~2026/03/31)

매수	중립	매도
96.04%	3.96%	0.00%